

와이너리 오너들이 직접 갈라디너와 시음을 진행하며 자신의 와인을 PR하는 '와인메이커스 디너'는 한국에서도 경험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카리브해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버진 그룹의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과 함께 이런 디너를 함께하는 건 분명 엄청난 행운이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올해 7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열린 행사는 이번이 2회째.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7명의 유명 셰프가 각기 한 코스씩을 맡아 매일 밤 100여 명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각 음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4~5가지씩 곁들였다. 행사의 목적은 현지의 어린이들과 학교, 적십자를 비롯한 자선 단체를 후원하는 것. 모든 티켓이 매진된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호스트가 되어 그의 소유인 니커 아일랜드(Necker Island)에서 연 런치와 디너였다. 셰프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이 행사를 위해 기부했으며 팝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의 작품을 비롯해 고가의 와인들을 매일 사일런트 옥션에 부친 판매액 또한 중요한 수익금이 되었다. 12월에 열릴 세 번째 행사에서는 요리 연구가이자 <The Korean Table>을 출간한 푸드 저널리스트 정태경씨가 초청되어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에디터 | 황선우

